

# ‘어린이날’ 문화잔치 열렸네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의 문화기관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해 펼쳐진 국립광주박물관의 '미술쇼',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고구신 공예', ACC재단의 '아이조아 콘서트'.

‘어른의 미래는 어린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의 어른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의미다. 올해도 어린이날을 전후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지역의 문화기관은 오는 5일 제 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CC 어린이문화원 등에서 펼쳐지는 ‘하우펀’ 올해 열리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HOW FUN 9)는 ‘도시’를 키워드로 전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하우펀을 개최한다. 올해 주제는 ‘함께 만들어요! 초록빛 도시’.

세부 프로그램은 모두 50여 종이 진행된다. 먼저 ‘도시 알아보기’는 모두 9개의 프로그램으로 뜻밖의 도시탐험, 알록달록 도시마을, 각양각색 건축도시,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인권도시, 도시에 야생이 돌아올 수 있을까?, 삼랑살랑 바람 부는 세계4대문명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 만들기’ 소주제 아래에서는 모두 9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드로잉 여행, 삼국시대 화살통 만들기, 내 맘대로 공중도시, 세계 도시 문화여행, 중앙아시아 대평원의 유르트 등이다.

국내외 20개 협력기관과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터키, 몽골 등 3개국 4개 기관은 각국의 도시 문화유산과 언어, 음식, 악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물려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ACC 축제와 공연 ‘여독시니’와 ‘바나나 꽃이 피었습니다’가 야외광장과 어린이극장에서 5~7일 공연된다.

한편 올해도 영상 공모전 ‘우리가족 솜뽕 썰링지’를 연다. ‘하하하 하우펀!’을 주제로 1분 이내 SNS용 영상을 만드는 공모전으로 축제기간 중 즐

ACC재단 ‘하우펀’ 5~7일 어린이문화원 일대 도시 알아보기 등 50개 진행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 여행’ 5일 비눗방울 놀이 등 체험 해리포터 버블매직쇼 무료 관람

국립남도국악원 어린이 국악극 5~6일 대극장 진악당 도깨비 모험 그린 ‘우리랑 진도깨비’

거웠던 가족의 모습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총 7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우펀 참가비는 무료이며 일부는 사전 예매를 거쳐 유료로 운영된다.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날 오지는 박물관 여행’ 광주박물관도 5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10회 어린이날 오지는 박물관 여행’을 준비했다. 야외 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박이와 사진 찍고 비눗방울 놀이도 함께’, ‘디폼블럭 만들기’,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미술공연 ‘해리포터의 버블매직쇼’(11시, 오후 2시)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미술공연: 해리포터의 버블매직쇼’는 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마감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어린이날 새싹 잔치’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5일 ‘어린이날 새싹 잔치’를 주제로 나눔·체험·공연행사를 진행한다. 이

번 행사는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나눔행사는 박물관 로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4회 펼쳐진다. 가족이 함께 기획 전시실에서 전시 중인 ‘광주는 교육이다’ 관람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광주읍성 만들기 총 100개를 증정한다. 가족끼리 100년 광주읍성을 만들며 광주의 중심인 읍성과 오늘날 충장로와 금남로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총 3회 진행되는 체험행사는 계묘년과 관련된 토기모양을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연필꽃이 만들기’, ‘미니언 만들기’를 통해 계묘년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준비한 페이스페인팅(오후 1시~3시)은 2회 운영하며 나눔행사와 체험행사는 선착순 무료로 진행된다.

야외마당 특설무대에서는 전래동화 인형극 ‘토끼와 호랑이’, ‘육십쟁이 토끼’가 각각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무대에 오른다.

◇국립남도국악원 어린이 국악극 공연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는 주인공 ‘우리’와 진도에 사는 도깨비 ‘진도깨비’가 펼치는 모험 이야기이다. 날개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주인공 우리와 도깨비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진도깨비가 천년나무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5일과 6일(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20년 국악원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전국 순회공연을 이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내용 일부와 소품 등을 새롭게 정비해 펼쳐지며 유쾌한 이야기와 어우러지는 가볍고 경쾌한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용필부터 주현미까지...음악공연 풍성

야외 음악 페스티벌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페스티벌이 풍성하게 무대를 채운다.

연말에 10년 만의 정규 20집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왕’ 조용필은 5월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3 조용필&위대한탄생’을 연다. 5만명 이상의 관객이 수용 가능해 모든 가수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조용필이 공연을 여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신곡 ‘필링 오브 유’(Feeling of You)와 ‘라’로 한층 더 짙어진 감성을 뽐낸 조용필은 다시 한번 주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트롯트 가수 주현미도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디너쇼 ‘5월의 러브 레터’를 연다. 매년 5월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해 열렸던 주현미의 디너쇼는 팬데믹으로 그간 중단됐다가 이번엔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 디바 박정현은 이달 단독 콘서트로 무대에 오른다. 5월 20~2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더 브리지’를 여는 박정현은 1일 데뷔 25주년 기념 10집 음반도 선보였다.

팝과 성악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사랑받아온 팝페라 테너 임형주도 국내 데뷔 25주년을 기념해 이달 14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단독 콘서트 ‘리빙 히스토리’를 선보인다.

불철 대표 야외 음악 페스티벌 무대도 풍성하게 채워진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 야외 음악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5월 26~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가수 태양, 크러쉬를 비롯해 장기하, 빈지노, 폴킴, 에픽하이, 악동뮤지션, 정승환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에 앞서 5월 13~1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에는 로이킴, 선우정아, 하현상, 정준일, 십센치(10cm)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 故서세원 서울 빈소, 동료 조문 행렬

이용식 등 코미디언 줄이어...주호영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한국에 마련된 고 서세원 빈소.

/\*연합뉴스

지난 20일 갑작스레 별세한 방송인 서세원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30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씨는 영정사진 속에서 흰 와이셔츠에 밝은 회색 재킷, 분홍색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환하게 웃은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전성기 시절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대로였다.

빈소에는 코미디언 임하룡, 가수 김홍국과 설운도, 각 방송사와 엔터테인먼트사 등 각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 30여개가 들어섰다.

한국코미디언협회장(장)으로 치러진 이번 장례식에는 고인과 방송 활동을 함께했던 원로 코미디언들이 발걸음을 했다.

코미디언협회 임영수(70) 회장은 “내가 데뷔했을 때 서세원 씨는 이미 스타였다.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 코너를 같이 했는데 내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그는 “서세원 씨와 1년 반 동안 함께 코너를 하면서 연예계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웠다”며 “고인은 코미디언의 교과서였다. 코미디언이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는 것도 서세원 씨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을 일”이라고 회고했다.

코미디언 이용식(71)은 외국 일정 때문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한 뒤 곧장 공항을 향했다고 한다. 이용식은 조문을 받기 전인 이날 오전 미리 장례식장을 방문해 첫 번째 조문객이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2008년 총선에 출마한 이 지사를 도우려 경북 김천을 방문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이후로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전 원내대표)도 방문했다. 서씨는 2008년 총선 당시 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를 방문해 도움을 준 바 있다.

장례식장 전광판에는 유족으로 재혼한 배우자 김모 씨의 이름과 함께 딸 서동주 씨 등 세 자녀, 외조카와 며느리의 이름이 올랐다.

서씨는 지난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 28일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국내로 옮겨 장례식을 열었다. /\*연합뉴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